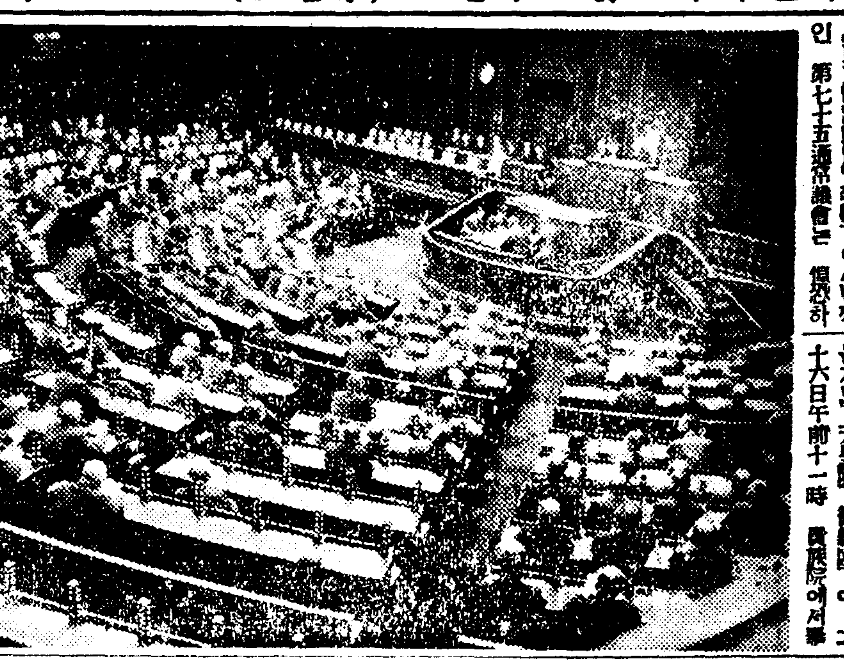
朝鮮日報
第二夕刊 (火) 二十六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月刊「朝光」 月刊「女性」 月刊「少年」

天皇陛下親臨下 第七十五議會開院式



【東京電話同盟】畏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二十六日午前十一時 貴族院에서 第七十五通常議會開院式을 行하옵시었는데 이날 陛下께옵서는 正裝을 하옵시고 …… 午前十時四十分宮城御出門, 同四十五分 …… 勅語를 賜하옵시고 …… 이에 第七十五回 通常議會의 開院式은 終하였다

開院式勅語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의 第七十五通常議會 開院式에서의 勅語는 左와 如하다

勅語

朕玆에 帝國議會開院의 式을 行하여 貴族院及衆議院의 各員에 告하노라 帝國과 締盟各國과의 交際는 益益親厚를 加함은 朕의 深히 欣幸하는 바이다 ……

衆院, 開院式後 勅語奉答文議決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의 衆議院은 開院式終了後 午前十一時五十三分 勅語奉答文을 議決하고자 本會議를 열고 …… 同五十五分 一日休憩하였다

優渥한 勅語에 議員一同感激

政民有志代議士 對議會策協議

【東京電話同盟】政民兩黨有志代議士會는 …… 二十六日午前九時 院內 …… 協議하였다

松島公使北行

【新京二十五日發同盟】…… 二十五日正午부터 …… 同五時三十分發「아지아」로 北行하였다

法務課를廢止코 刑事,民事兩課新設

法務局事務分掌規定一部改正

總督府에서는 法務局事務分掌規定의 一部를 改正하여 法務課를 廢止하고 刑事課, 民事課를 新設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七日附로 實施한다 ……

◆刑事課所管事項
一, 刑事에 關한 事項 ……

◆民事課所管事項
一, 裁判所의 設置廢止及管轄區域에 關한 事項 ……

今年最後의 定例局長會議

昭和十四年最後의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二十六日午前九時 ……

北支佛駐屯軍 今日天津發撤還

【天津二十六日發同盟】北支佛國駐屯軍 ……

辭令

總督府遞信書記 …… 總督府遞信副事務官(六等) …… 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 補朝鮮產業技師(八等待遇) ……

南寧奪回企圖의 廣西軍을捕捉擊滅

九塘方面만敵死者七千

【南寧二十五日發同盟】無謀하게도 南寧奪回를 夢想하고 數日來 反擊을 繼續하고 있는 廣西軍에 對하여 我方의 捕捉殲滅戰은 目睫間에 切迫되었다 ……

宮村部隊長의 奮戰

【○○二十五日發同盟】……

支那紙도 龍門陷落報道

【香港二十六日發同盟】當地支那 ……

最後의手榴彈으로 壯烈·五勇士自爆

南昌東南湖畔에서

【南昌二十五日松尾豊田同盟特派員發】二十四日午前五時 敗走의 敵大軍은 ……

明年度豫算綱要 貴衆兩院議員에配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六日 昭和十五年度 一般會計豫算綱要를 貴衆兩院議員에 配布하였는바 그 概要는 左와 如하다

一, 昭和十五年度歲入歲出豫算總額

▲歲入

	昭和十五年度豫算額	前年度豫算比較增
經常部	[illegible]	[illegible]
臨時部	[illegible]	[illegible]
普通歲入	[illegible]	[illegible]
公債金	[illegible]	[illegible]
前年度剩餘金繰入	[illegible]	[illegible]

▲歲出

經常部	[illegible]	[illegible]
臨時部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八面鋒

◇ 各家庭에 戶別放穀令! 買藏米가 지고 걱정들을 아니던가.
◇ 한家庭에 三個月食糧을 買藏하드라도 平年의 三倍米穀出廻가 必要.
◇ 各家庭의 買藏을 默認하고 出廻讓渡만하다면 몇일 안가 못기.
◇ 이래서 消費統制의 强化는 物資需給緩和에唯一策.
◇ 久原氏, 汪兆銘氏와會見. 政友會分裂苦衷을 披瀝도조 他山之石.

蘇聯의南進에對備 土,防禦準備에汲汲

보스포러스海峽要塞도强化

【소피아二十五日發同盟】最近土耳其가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英佛의 陣營에 加擔한以來 蘇土關係의 冷却은 想像以上으로 深刻化하여 二十五日 소피아市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土耳其는 蘇聯의 南進에 備하여 目下全力을 다하여 對蘇防禦施設充實에 努力하고잇다고傳한다 ……

英佛土三國 反蘇十字軍組織

【莫斯科發電】近者莫斯科의 라디오放送에서 蘇聯은 「英佛土互援協定은 附屬秘密協定으로 土耳其에 反蘇軍을 結成한다는 條項을 決定하고잇다」고 報道하고 잇다 ……

芬蘭機六機擊墜 蘇聯軍戰況發表

【莫斯科二十五日發同盟】레닌그라드軍管區司令部發表 ……

蘇,聯盟除名을反駁 英佛의野望失敗라고非難

【日蘇通信】지난 十二月十四日 國際聯盟이 蘇聯을 除名한 件에 關하여 타스通信은 이지음 蘇聯各紙에 反駁的 見解를 發表하엿는데 그要旨는 如左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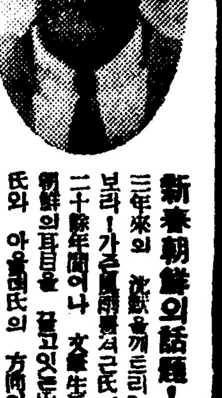
敬神崇祖의大御心 宮內省에掌典職新設

【東京電話同盟】恒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敬神崇祖의 大御心이 두터웁시사 祭祀에 特히 御軫念하옵신다고 拜承되는데 ……

三內親王殿下 今日葉山에行啓

【東京電話同盟】照宮, 孝宮, 順宮三內親王殿下께서는 二十六日午前十一時五十四分 …… 葉山御用邸附屬邸에 들어가시었다 新年을 同御用邸에서 맞으시고 一月七日까지 御滯在하실御豫定이시라고 承聞된다

新春座談會
現代女性의結婚設計圖
(出席者)米國哲學博士高凰京·女流피아니스트金信德·女流畫家李賢玉·姊妹園高鳳京·世醫專齒科金壽任
短篇小說 車안의風俗 …… 朴魯甲
短篇小說 惜別歌·鄭飛石
映畵演劇 人氣男女俳優採點錄 …… 南水東
秘苑拜觀記 洪
大評長連篇載小說 好의
늙은窃盜犯 李光洙
人生沙漠 嚴興燮
레뷰一 (本讀樂音) 金管
特選大號案內 ☆藝苑動靜 ☆文壇消息 ☆映畵界朗報 ☆小型新聞 ☆讀者살롱 ☆特選笑話 ☆演藝界朗報 ☆文局往來 ☆編輯後記
新年의計劃 名士들을映畵에出演시킨다면!
映畵監督 朴基采
新世紀
創刊一週年紀念 新年躍進號
定價四十錢 送料二錢
★注文은반드시先金으로!
京城府鍾路二丁目 振替口座京城一九三四四番 電話光化門九二七番
發行所 新世紀社
三大特別隨筆 季節의落書…李孝石 "文學的獨白"…李北鳴 적은生命의불꽃…李軒求
★時局과우리들의認識(編輯局)
★아름다운國家에바치리라(鄭美談)
朝鮮女性과스타일(女讀本) 張文卿
通俗醫學 輸血이야기 權寧禹
朝鮮力道의過去와將來·李圭鉉
歐洲大戰과빨찬·高永煥
새해의첫침우운수이야기
特輯畫報 人氣音樂家寫眞帖
朝鮮發行部數第一
新春二大特別記事
나의前進目標 呂運亨 李光洙



暴利取締令全面的强化

品目限定은撤廢하고 戒告업시處罰한다

明日發布·即日로實施

총독부에서는 내지에준용하여 폭리취체령(暴利取締令)을개정강화하여 명이십칠일에 발포하고 즉일시행하기로 되엇다 동령은 소화십이년오월십이일 총독부령 제육십호「폭리를목적하는매매의 취체에 관한건」을사변후에 개정실시한것으로 금속제품 기계기구 자동차기타 차량부분품 전기용품 피복재료 약품 비료 고무 펄푸 곡물기타음식물 세멘트기타 토목건축재료 목재 석냥 어묵등이십구종목을 한정하여 폭리를보라고 매점(買占)또는 매석(賣惜)하자 하건고한자 또는폭리로판자 또는팔라고한자가 잇슬때에는 조선총독또는 도지사는 기간을정하여 다시 그런행위를 하지말라고 계고(戒告)한후 다시위반한때에야 처벌하기로되어잇서 계고처분은 처벌에필요한 조건으로 되어잇기때문에 신속한처벌을하여 폭리행위를 엄계하는데 불편이만흐므로 내지에서는 동령을 개정하여 계고처분을 빼어버리고 적용되는 품목을 이십구종으로 한정하엿던것을 철폐하고 전상품에 확대하여 폭리행위등 취체규측(暴利行爲等取締規則)이라고 하고 상공성령으로 이십일 공포즉일 실시한것이다 조선에서도 내지와가튼 개정안을 만들어 그동안 섬의중이던바 섬의도 끗낫스므로 이십칠일 총독부령을 마라가지고 명일 실시하기로된다

개정된 부령에의하여 매점 매석행위는 단연되임으로 처벌할수잇스므로 쌀기타 생활필수품의 축적을 촉진하는데효과가 잇슬뿐아니라 가격등 통제령에서는 제외되어잇는 생선과과 야채 청과(生鮮食料品)의 가격을 누르는데도 효과가 잇슬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령에 잇서서도 취체의대상은 생산자와 판매자이고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안코 벌칙도 삼개월 또는 백원이하의 벌금형그대로이고 가격등 통제령의적용을받는 위반사건로 매점 매석행위만은 이규측에 의하여 처벌받는것은 모두 종전대로이다

各家庭의米穀買藏

防止對策을講究

明日、府에서食糧對策委員會

구미부대(求米部隊)의 활동으로 최근경성시내에는 도내각지방으로부터 쌀이 속속들려들어옴에도불구하고 각가정에서의지나친 매장(買藏)때문에 나가쌀의 문량으로떠진다면 부족할리가업슬텐데 실지는 여전히쌀을 구득하기 곤란한 실정에 잇는데 죽을 가저오게되어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기 위하여서 경성부에서는 이십칠일 오후두시부터 부청부윤응접실에서『경성부임시식량대책위원회』를 열기로 되엇다 회의에는 회장인 고교(高橋)경성부윤을 비롯해서 도청측과 시내각경찰서장과 미곡업자등다수가 참석할터로 소비측이 사서차두는것을 어떠케 방지할것이냐에 대해서 각방면으로연구할터이다

自肅下의年末

電信電話는늘고年賀狀은激減

이십육일 중앙전신국장회의에서 산전체신국장(山田遞信局長)이 보고한바에 의하면 지난이십일부터 이십오일까지의 경성시내의 연말우편물수급상황은 년하우편날은 자숙적이세여 작년보다 일수(日受)는 사할이줄이 적어젓고 도착은 구분이줄어들엇다 소포는 도착이 이할아오다가 전차에부디친것이다 일분이늘엇고 인수는 작년과갓다 다 통상우편물은 작년과갓고위체는 일할이늘엇다 전신은 이할이르고 시외통화는이할무분이가각늘어 경기조흔 연말상을 보여주고잇다

新高山丸漂流

황해도 송천도(小靑島)동쪽으로부터 진남포(鎭南浦)에 들어온 급보에의하면 이십오일밤 여덟시삼십분경 동경의서남쪽 이십해리(海里)가량되는 곳에서 토좌상선(土佐商船) 제삼신고산환(第三新高山丸)(사백톤)이 기관의고장으로 표류중이다 이배에는 승무원십육명이 잇는데 방금이들을 구조하기위하여서 구조선을 수배중이다

林産資源積極增殖

林野調査委員會도復活

조선의"나무업는"산을 업시하기위하여 총독부에서는 오래전에 조선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를 설치하고 조선임야의 번창식에대하여 여러가지로 방책과정책을세워 착착진행하여오던중 중간에 그필요를 인정치안케되어 소화십이년에이것을 폐지하엿섯는데 최근전시경제를 싸고도는 임산자원(林産資源)개발이"팔푸"기타 군수품제작에 절대필요 긴급성을가저오게되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명년도에 임야조사위원회를 다시부활시켜가지고 임산의증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로되엇다 이번에 조선에서 삼림정책을강화하는것은 먼저법적 근거가확실하지안흐면 안되는관계상 법령을강화하기로되어 종래 조선에서는 삼림령(森林令)하나만 적용하여오던터이엇스나 이번에는 내지에서 실시하고잇는 임야법(林野法)을 증가하여 삼림령 임야법 두가지법령을 실시하기로되엇다 지금까지 조선에서임야정책은 빨간산을업시하자는데 그 근본목적이잇섯스나 금후로는여게서한거름더나가서 임산의증식(增殖)을 철저히도모하여 전시국책에 순응하려는것이다

妙香山郵便所 通話區域決定

체신국에서는 십이월중에 묘향산우편소에 전화를 개시하엿는데 이번에 이우편소의 통화구역은 정주(定州)박천(博川)두우편소를새로 더너키로 결정하엿다 통화개시는 일월일이며 요금은 아래와갓다

◀妙香—定州 一通話 六十錢 呼出料 三十錢

◀妙香—博川 一通話 四十五錢 呼出料 二十五錢

철업는處女 女給못돼自殺

부내관수정(觀水町) 이선(李善)(一八)은 이십이일밤 자기집에서 양잿물을 먹고죽엇는데 자기는 여급이되려고하엿스나 집에서허락지안흠으로 비관한것이라한다

담뱃는竊盜영감

부내통인『산타·클로스』영감— 크리스마스를 만난이십오일 새벽다섯시반쯤 부내인사정(仁寺洞) 이허(李熙)씨집에 침입하여 뒤쫓아나오는것을 발견하고 보통을 제지당한 지게됨 명되어 동서에서 체포하여 취조한결과 이 노인은 종로경찰서원 주소부정 의 김용태(金容泰)(五六)로 그는『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그집에들어가 샤쓰등 세탁물을 보자에싸가지고 나오던것이 판명되어 유치장신세를 지게되엇다

咸南痘禍擴大

死亡者九四名現在患者一六一

咸興과利原이尤甚

【咸南支社電話】 함경남도내에발생중인 천연두발생 상황의이십일오전 열시현재를 함경남도 위생과에서 집계한바로 보면 발생삼백오십이명 사망구십사명 현재환자 일백육십일명으로 가장심한데는 이원(利原)과 함흥부라고한다

培材卓球部 東京에遠征

배재중학탁구부에서는 래일월 사, 오일양 일, 구일에 동경에서 열리는 제구회 전일본중학교탁구대회에 출장코자 래이십팔일 경성을떠나기로 되엇는데 그 인원은 다음과갓다

◀引率者 金炳鎬 ◀選手 林顯基 安敏鎬 ◀補欠 鄭在洙

普專籠球廿日午前發

전국종합롱구대회에 출장하는 보전롱구부는 이십팔일 출발한다

巨人軍勝 【아마토리 二十五】

일본농구선수권대회 동경대학과 거인군은 이십오일 신궁에서 시합하엿는데 거인군이 승리하엿다

巨人 0000000130 0—4

東西대비-開幕 【東京】

동경대학과 경도대학의 동서대항 이십오일 개막하엿다

電車에轢傷

이십육일오전여섯시반쯤 부내태평통(太平通)에서 구십오번지 전차에 치어 길야정(吉野町)이정목오십번지 오수성(吳洙星)(二三)은 전차에 치어 부상을 입고 인사불성이된것을 소방서 구급차로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중인데 생명은 위독하다

自動車와馬車衝突

馬車夫는失命

楊州街道의交通事故

이십사일오전열시쯤 경주에로 소유 신정연(申聖淵)이 가운전하는 대형여객자동차가 경성으로부터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楊州郡榛接面長峴里)에 향하여 질주하던중 진접면 내곡리(內谷里)에 다다르자 갈는쪽으로 부터오던 이용정(方鍾鎬)(二九)이 끌고 가는 마차와 충돌하여 방종호는 마차와함께 노피여 자나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뒤굴을깨고 바른편갈비대가부러저 곳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치료를가하엿스나 이십사일오전세시오분쯤 드디어 절명하엿다

假刑事

空酒먹다들켜

공술을 먹으려고 가형사노릇을하다가 진짜형사에게붙들린사람——부내숙창정삼일 오백오번지의 이흥전대국자동차운전수 이춘형(李春衡)(二九)은 이십오일오후 열한시 친구를맛나 술을 먹고시프나 돈이업슴으로 공술을 먹어보려고 부아현정오십번지 양봉호(梁鳳鎬)주점에들어가 오전사수면허증(?)을 들춰내보이며 나는 동대문경찰서고등계형사인데 너 이집에 술맛이조타고해서왓스니 내노라고하여 술을 얻어먹다가 여간이 어려운 세궁민들에게 세말에 따뜻한 끼니한끼씩이나마 전해주고자 경성부에서는지난번부터 시행중이라 한다

江界水電疑獄事件

三名만體刑判決

其外卅名은執行猶豫

【咸興支社電話】 강계수전 토지매수의 수회사건(江界水電土地買收疑獄事件)의 제일심공판(金化璧)등 이하 사십명에 대한 판결언도는 이십육일오전열시 강전(吉川)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튼언도가 잇섯다

◀金化璧 二年 追徵金五百圓 ◀白勳 一年 追徵 一百二十日通算 ◀元 二十日通算 ◀李永實 一年 三年執行猶豫 一年 百二十日通算 ◀金福善 六個月 三年執行猶豫 ◀李商鉉 一年 ◀孫時德 六個月 三年執行猶豫 ◀李在殷 十個月 三年執行猶豫 ◀金鍾根 六個月 三年執行猶豫 ◀李元根 十個月 三年執行猶豫 ◀崔斗鉉 上同 ◀金炳寶 一年 三年執行猶豫 ◀金學淳 一年 三年執行猶豫 ◀尹沖澈 上同 ◀金鍾彬 八月 三年執行猶豫 ◀朴基瑞 上同 ◀方瑩昌 上同 ◀趙瑞衛 上同 ◀金興柱 上同 ◀李鳳臣 十個月 三年執行猶豫 ◀李文鉉 上同 ◀金一龍 上同 ◀李泰壽 上同 ◀朴斗燮 上同 ◀金鳳來 上同 ◀康 ◀李鍾根 上同 ◀金基乾 同上 ◀元 壽福 罰金二〇圓 三年執行猶豫 ◀李寅洽 罰金一〇圓三年執行猶豫 ◀鄭有河 同上 林寅涉 同上

一時에火災兩處

【江陵】 강릉읍금학정(金鶴町)에서는 지난이십이일저녁때에 일시에양처에서 불이나서 소방대의출동을 보앗는데 피재물은 이는동정의 박승윤(朴勝潤)씨인결과(?)약원으로 손해는 크지는아니하다한다

歲暮同情金募集

豫想外로成績良好

二十八、九兩日間方面事務所等七處에서

一萬二千戶에適宜하게配分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성부 사회과에서 일반에게 세말동정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동정금모집에 착수하엿는데 예상외로 동정금이 답지하여 이를 사천육백여원이 뫼인바 이를 경성부내 방면위원을 통하여 세민에게 나누어주기로 되엇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이십팔일과 이십구일 양일간 동대문 서대문 용산 마포 성동 성북 영등포(永登浦)등 방면사무소에서 세민들에게 일만이천호에 한호에 삼원식 ··· 적의하게 배분하게 되엇다 한다 ··· 죄가 확정되엇다

遺棄된嬰兒屍

仁川署發見、調査中

이십오일오후 다섯시반쯤 인천부대화정(仁川府大和町)오십일번지압도로에서 여자영아시체를 발견하엿는데 인천경찰서에서 검시를 한결과 탯줄을달고잇는 영아로서 죽은지 하루이틀 되엇고 그 곳에다 갓다버린것이다

殺人未遂로斷定

一審判決대로二年役

處女에칼부림한金敎哲事件

사람이지에 아무 응답이 업다고 동리여학생을 칼로 찔른한 황해도 황금정(黃金町)사정목일백삼십일번지 김교철(金敎哲)(二三)의 살인미수피고사건의 제이심공판은 이십육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열렷는데 제일심대로 징역이년의 판결이 내렷다

失戀하고飮毒

이십오일 오전두시쯤 부내삼각정(三角町)오십삼번지 삼림주사(森林主事)김창수(尹昌?)(二?)은 동아을 먹고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은건지게되엇다는데 원인은 실연으로 목하 수색중이다

墨湖港의狹小

漁民들困難莫甚

【墨湖】 어항묵호에 잇서 잔교건설은 수천어민의 요망하는바이나 어항장(漁港場)의 협소로 누조한바와 가터 이에 어선이 파도에 쏠리어 피해가 막대하다 ··· 해양노화를 ··· 보충해달라고 해마다 요망이 있다고

天主敎神父도두名

應召、今日歸佛

구주대전이 버러지자 조선에 나와잇던 불란서의 천주교신부 일흔명이 본국으로부터의 소집령을받고 지난구월 본국을향하여 떠나갓슴은 그때에 보도하엿거니와 지난이십사일 또다시 신부두사람에게 소집령이 날러왓다 이들은내원정(元町)사정목에잇는 천주교신학교(天主敎神學校)교수『하—렌』(三〇)씨와 대구천주교신부(大邱天主敎神父)『로제』(三〇)씨로이십이일밤명동천주교회안에서경사로운『크리스마스』의 밤을마치고 이십칠일 오후네시반 경성역발 급행차로 천안(天安)에서 북경을 거쳐 본국을 향하여떠나간다

北青名刺交換會

【北青】 금년도 명함교환회는 예년이 남지안코 잇는데 소화십오년 신춘을맞추어 북청읍에서는 예년의 예에 의하여 명함교환회를 일월일일 오전열시 북청보통학교에서 개최한다는바 일반의 만흔참가를바란다고 이일오전 십시 오일까지 북청읍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고한다

電車脫線

鍾路네거리에서

이십육일 아침열시쯤 교통이번잡한 종로네거리에서 왕십리로부터 서대문으로 가던 경성이백호전차가 탈선하여 한시간동안이나 교통이 두절되엇는데 동 전차가 원인 탈선한 사상자는 업섯다고 한다 ··· 일어난것은 탈선된것이라한다

玉溪工事場慘事後報

【玉溪】 기보=지난이십일일 오전한시반 동해북부선 제이십사공구철도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하던중 산이무너저서 사상자의 씨명은다음과가튼데 시체는 이일 금진(金津)공동묘지에 가매장을하엿다고한다

◀卽死者 慶北英陽郡柄谷面白石里 金在植(二) 忠北槐山郡上芼面中東里 金鍾樂 一名은 住所姓名不明 ◀生命危篤者 江陵郡玉溪面珠樹里 金昌德(二)

氷上하키에 延禧對京大

東大 51 (30—3 21—9) 12 京大 / 東京帝大 18 (15—0 3—6) 6 日本大學

氷上하키와 崔·道鐘 ②

散步

연말을 앞두고 요세 귀가아프게들리는말은 쌀이잇서도 쌀을 살수업다는말이다 ◀그러나실상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도 하도두고나면 정말처럼 알아지는법이라 서로 정도이상의판단을 하는 해는말이 이제는 누구나 삼아 거짓말을 조금도 해괴하지안이거든 ◀돈잇는집치고 쌀멧가마니씩 아니사둔집이 잇는가 이것이 거짓말의 출혼한증거라할것이다 실상인즉 이러케모두 쌀을사다 싸둔사람들때문에 쌀이 더더구나 귀해진것도사실이다 ◀그러커늘 먹을양식을 잔뜩드려노코 나서는누가 쌔서나갈가봐 돈잇서도 쌀을살수업다는 만석만리러 사회전으로 연호를 이를 안주려면 생각을 고쳐먹고 ◀이런사람들에게 먹으면 가치먹고 굶으면가치굶자는 말은해도 소용업스려니와 공연히 국책적으로 거짓것이나마 하지안는정도의 사회도덕이라도지켜달라고 권하고십다

廣告

法律을몰라서

당치안흔悲劇을惹起

一에서十까지 법률에관계치안흔 면이업는世上!最近東京中野區小瀧町四一 東京出版社에서 辯護士의 日常相談知識이라는 稚問題 法律이가 서뿔라(?)고 解決되는 法律의 常識 그리고 同書는 總頁四百頁定價 一圓인데 特價一圓二十錢으로 特賣하고잇다 希望者는 前記東京 出版社에 振替로申込하면 곳送本한다

氷上하키의 발상지는 어디인가 ··· 『렌디—』가 一八六〇年인데 英國騎兵聯隊사람들이 가지고갓다하며 最初의 競技는 『몬트리올』州 『킹스톤』市公會堂에서 行하엿고, 其後 一八七九年十二月에 『몬트리오—ㄹ』에서 『케벤』地方最初의 競技가 開催되엇는데 出場者는 『맥길大學』生과 同卒業生이엿고 使用된 『스틱』도形形色色의 여러가지엿섯다고한다. 即아버지의 散步用 短杖을 가지고나오는사람 『라크로스』의 『크라부』, 或은 빗자루대를 들고나오는사람等等이엇다. 同年에 맥길大學에서 班마다 규칙을만드러가지고 新規則에 依하여 競技를 行하엿는데 當時한팀의人員은 九名이엇고 服裝이不充分하야 競技中에 負傷者가 續出하엿다고한다

其後次次競技者의數를 주려서 六七名乃至四五名까지減少하엿고 競技時間도二時間乃至一時間이나 햇는데 興味가增進됨을따라 選手의交代制를 만들엇고 時間도 漸次줄여서 三時間까지되엇다고 하다

그러든데 『렌디—』가今日의 『아이스하키—』와다르게된것은 어느때부터인지 『캐나다』의 『하키—』가 一八九五年 處에 『몬트리올』의 英國에 傳해지며 『렌디—』 또한 그 後에 『하키—』와 競技가 合作되어 傳해지며 『캐나다』 『아이스하키—』가 其後 英國에서 盛行되기 始作하엿다고 한다. 그 後로 歐洲諸國에서도 盛行하게되엿는데 오늘날과가티 盛行하게된 것은 『캐나다』와 美國에서이니 ··· 『렌디—』를 시작하여 『하키—』가 今日의 『아이스하키—』로 發展하엿다고 한다.

朝報案內

特約店募集 서울처가의 고무, 양말, 지퍼 모자에 대한 金子屋고무 ... 신품 京城府西大門町五〇 錦繡 양말 방한

洋服 國民服、オーバ、紳士服 ズボン各種 京城府黃金町三丁目(永樂町停留所前) 高級專門 富永洋服店

讓渡 米國製ナショナル金錢登錄機 時價二千圓モノ一千二百圓ニテ讓渡或シタシ 電話光二八六番

賣家 府內藥町二丁目一九七坪高臺東南向自動車橫付新築二階本宅一延四五坪貸家三棟四戶往延約百坪至急讓ル希望者電本五八七一番へ來談アリタシ 黃金町二ノ一三七 京城秋本代理店

半島會館

여러분의 待合室 味의殿堂 · 半島會館

主任 華 — 本位 事食

食定御 와 茶喫

喫茶 一階·二階 大衆食堂

前 鐘路朝鮮日報社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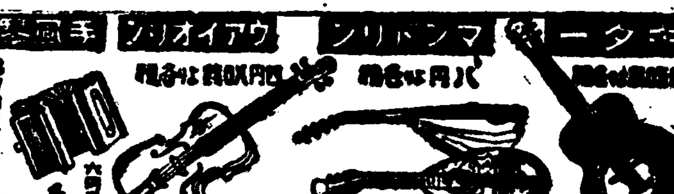
パンタリン

注射劑 八錠 10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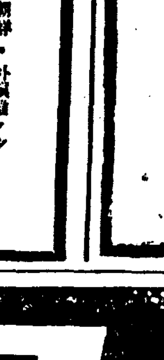
咳 鎭痛 鎭靜 鎭咳

元賣製 三龍製藥社 京城府南大門通

用試品 有要格者限乞試用



山口樂器店 鍾路支店



觀相大方家

松井先生은昭和十二年十二月에 上京하야 人生의百般吉凶禍福을 看破하야 運命을 指導하야 ... 許一圓以上(但遠方에서는 寫眞을 送付) 外料金은 別途 京城府西大門町 ...

新文學史 林和

第二章 新文學의 胎生(完)

新詩의 先驅로서의 唱歌

그러나 이 初期唱歌의 形態를 살피므로 愛心되는것은 集然이 唱歌들이 노래되어진가하는 點이다 集唱가대서는 노래되지 아니했을것가치 생각된다 이것가지 唱歌의 曲을 發見할수 없다는것이 理由의 하나도 되겠스나 그보다도 開化以後 新詩가 나올 隆熙初年까지 노래되지 아니한 唱歌가 퍽多히 創作되었다는것을 指摘하는것이 重要하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唱歌들이 가르처 讚歌類가 西洋音曲을 내나 新思潮를 다머가지고 變形된것이라고 말한것과 노래되지 아니한 唱歌의 存在는 矛盾하지 아니한가 뭇는다면 그것은 一見 矛盾하는것갓다 그러나 事實에 잇서 矛盾하지 아니한것은 그것이 언제나 노래될 可能性을 가지고 잇기때문이다 卽 西洋唱歌曲에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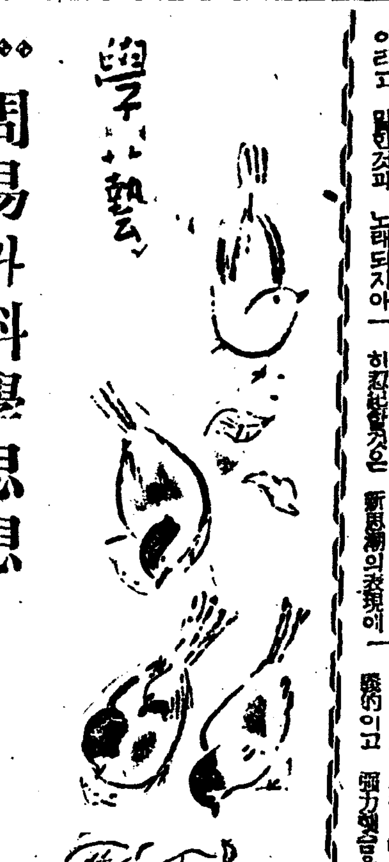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노래되지 아니한 唱歌는 事實에 잇서 새로운 思潮의 立場에서 쓰워진 讚歌詞의 改良된것에 不過하다. 新思潮의 啓蒙이나 政治思想의 宣傳이나 國民的自覺을 鼓吹하기위하여 씨워진 唱歌는 실상 이 노래되지안는 唱歌, 바꾸어말하면 새立場에서 씨워진 讚歌詞의 變形에서 [illegible]

그러면서도 初期의 唱歌가 單純한 新思潮를 담은 讚歌詞의 域을 넘고 그것의 變形을 [illegible] 新思潮의 表現에 [illegible]

[illegible] 西洋音樂은 周知하는바와가치 讚美歌와 더부러 [illegible] 輸入되엇다. 昭和十四年六月二十一日 朝鮮日報紙上 [illegible] 西洋音樂의 『第一步』 [illegible]

[illegible] 이것은 西洋音樂과 朝鮮의 新詩가 [illegible] 唱歌는 [illegible] 새로운 時代의 詩的表現의 唯一한 形式이 되엇다.

그리하여 [illegible] 時的形式이 되엇다. (訂正) 去十二月二十日附 第四段 [illegible] 去十二月二十一日附 第一段 [illegible]



學藝

周易과 科學思想

周易思想의 歷史觀의 再發見 ④

金明植

「衣裳」이 發明된 버금段階에 이르러서 「刳木爲舟하고 剡木爲楫하여 舟楫之利로 以濟不通하야 致遠以利天下하니 蓋取諸渙이라」하여 舟楫의 發明된것을 말하고 衣裳時代와 舟楫時代를 二個의 文化段階로 偶然히 區別해노앗다 그러나 舟楫時代는 禹의 治世에 當하고 또禹는 四乘을 作하여 治水하엿다고 尙書에 記錄하엿다 그리고 四乘은 橇, 欙, 車, 舟를 이름이고 禹는 堯舜과 同時代여서 衣裳과 舟楫은 同時代의 發明이 아니엇가한다 그러나 舟楫은 衣裳이 發明된뒤에 禹에 依하여 發明되엇스면 禹의 治世가 堯舜의 治世와 다른만큼 文化段階를 따로세우지 못할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버금 段階에는 「服牛乘馬하야 引重致遠하야 以利天下하니 蓋取諸隨」라 하여 役畜의 飼養을 말하고 또 버금段階에는 「重門擊柝하야 以待暴客하니 蓋取諸豫」라 하여

「私有」財產이 形成되는 과정과 함께 盜賊이 생겨서 그를 防禦하는 設備가 發明된것을 말하고 또버금段階에는 「斷木爲杵하고 掘地爲臼하야 臼杵之利로 萬民이 以濟하니 蓋取諸小過라」하여 農業經濟가 發達됨을 따라 여러가지 農具가 發明된것을 말하엿다 아마 이時代는 殷의 中葉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그버금에는 「弦木爲弧하고 剡木爲矢하야 弧矢之利로 以威天下하니 蓋取諸睽라」하여 弓矢의 發明을 말하엿는데 弓矢의 發明이 이와가치 後世로 나려온것은 弓矢가 普及되어 社會情勢가 軍國化하는 現象을 이룸이니 그러므로 弓矢之利로 以威天下라 하여 弓矢가 武器로서 널리 普及된것을 말하엿다 그리고 弓矢가 언제 비로소 發明되엇는지 이제 이를 알수업스나 적어도 堯舜禹時代로 생각되는데 이 原文의 歷史段階는

「殷末」紂代 이것가치 보이나 이時代에 이르러서 비로소 弓矢가 發明되지 아니한것은 分明한 일이다. 또 버금段階로 말하면 「上古에 穴居而野處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宮室하야 上棟下宇하야 以待風雨하니 蓋取諸大壯이라」하엿는데 宮室의 發明은 여러時代에 亘하얏스므로 어느 聖人을 特히 指稱치안코 後世聖人이라 하엿다 그리고 後世聖人은 黃帝堯舜을 이름이라한者가 잇스나 黃帝堯舜時代에 宮室이 發明되지 아니한것은 堯舜의 宮殿은 『土階三段 茅茨

不剪』이라는 記錄으로보아 알수잇는일이니 여기서말한 後世聖人은 黃帝堯舜으로 볼수업다 그러므로 歷史의 進化段階를 알아보지 안코 聖人觀念을 超時代的으로 提示하는 言論은 注意치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宮室이 發明된 버금段階에 이르러서 「古之葬者는 厚衣之以薪하야 葬之中野하야 不封不樹하며 喪期無數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棺槨하니 蓋取諸大過라」하엿는데 厚葬의 風俗은 諸民族이 相異하거니와 棺槨을 作하고 喪期를 定함은 禮儀의 發展을 [illegible] 그리하여 文字의 發明으로써 最後의 段階를 삼아 「上古에 結繩而治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書契하야 百官以治하고 萬民以察하니 蓋取諸夬라」하엿는데 이

「歷史」以前의 一段階로 잡은 [illegible]

「封建」制度의 完成이 [illegible] 禹의 代에 [illegible] 文字를 發明하엿다하나 [illegible]

이오 殷代에 發達된 [illegible] 考證에 依하면 殷末에 이르러서 文字가 發明되엇다하는데 支那의 封建制度는 周朝에 이르러서 完成되엇스니 「上古에 結繩而治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書契하야 百官以治하고 萬民以察」이라 한것은 孔子의 이른바 「郁郁乎文哉」이라한

「政治」的現實을 [illegible] 周易의 夬卦는 決斷하다는 뜻이오 封建政治가 이 段階에 이르러서 完成된 事實이다 [illegible] 周易의 封建觀의 最後段階가 [illegible] 封建的 時代를 [illegible] 以上各卦의 封建的 解釋을 [illegible] 究明치못한것은 遺憾이다.

孫子講義

李昇圭(三四五)

虛實篇(八)

故로日勝可爲也니 敵이雖衆이나可使無鬪니라

(註) 制勝하는것이 나에게잇는故로 勝을可히할수잇느니라

(通解) 故로갈오대 勝을可히할지니 敵이비록衆多하나 나의權變과 計謀를알지못하여 敢히 싸우지못하느니라

(通解) 敵이비록 만하나 可히 하여곰 싸우미업게할지니라

故로策之而知得失之計하며

(註) 策은 헤아린다는말이라 計는計畫이라

(通解) 故로策度(헤아린)하여 得失의 計를알며

(例) 西漢太祖十一年에 淮南王 黥布가 叛하거날 上이 薛公을불러 [illegible] 薛公이갈오대 黥布가만일 上計에나면 山東은漢의所有가되지 못할것이오 中計에나면 勝負의數를可히알지 못할것이오 下計에나면 陛下는베개를 노피하시고 누어서 계시리라 [illegible] 어떠케하는 말인고 對하되 東으로 吳를取하고 西으로 楚를取하고 齊를倂하고 魯를取하고 燕趙에檄을 傳하여 그곳을굿게지키면 이는上計오 東으로 吳를取하고 西으로 楚를取하고 韓을倂하고 魏를取하고 敖倉의 粟을웅거하고 成皐의 口를 막으면 이는中計오 東으로 吳를取하고 西으로 下蔡를取하고 越에歸重하고 [illegible] 下計니이다 上이가론대 布가 [illegible]

作之而知動靜之理하며

(註) 作之는 激作시키는것이니 조금飮을激怒케하야 그動靜의理를 아느니라

(通解) 作케하야 그動靜의理를알며

(例) 晋文公이 宛春을拘執하야 楚將子玉을激怒케하니 子玉이드디어 晋軍을치니 이는激怒히 動한것이오 諸葛亮이 巾幗婦人의衣服으로 司馬懿에게보내여 怒케하나 懿가맛참내나와 싸우지아니하니 이는 [illegible]

形之而知死生之地하며

(註) 杜牧이曰死生之地는戰地를가리친말이라 大槪戰地는 死地에되지혹 반드시살고 生地에되지혹 반드시죽나니 내가 多方面으로 敵人을 흔들어서 써나를 應하는情形을 본然後에 따라서 制勝하면 死生의地를可히 알수잇다

(通解) 形케하여서 死生의땅을알며

角之而知有餘不足之處니라

(註) 角은角力이니 힘을 빌어 본다것이라 힘을 빌어 보면 有餘하고 不足한곳을 아나니라

(通解) 角케하야 (힘을빌어보아서) 有餘하고 不足한곳을아나니라

文化討議室

【問】 文學硏究에 조흔書籍을 下敎하여주십시요 (扶安 [illegible])

【答】 文學이라고만 말해서는 너무漠然합니다 國別을따라 英文學 佛文學 支那文學등이 잇고 또 種類에 딸아 詩, 小說, 批評등이 잇서서 더퍼노코 文學이라 고말하고는 조흔解釋을 指摘키 어렵습니다

위선 文學槪論가튼것을 읽어서 文學의 槪念부터 밝혀가지시는것이 어떨까요 文學槪論으로는 여러사람의것이 잇지만은 위선 알기쉬운點을取해서 文化書房發行으로 八住利雄著 『初學者ノ爲ノ文學槪論』이 조흘것갓습니다 (文化書房 東京市本鄕區 [illegible] 定價一圓三十錢)

【問】 (本社서ー비쓰係員) 京城市內에 「라디오」技術者講習所가잇습니까. 잇스면 規則은 어떠한가요 (海州 [illegible])

【答】 京城府 [illegible] 光云商會內 朝鮮無線技士養成所 規則書는直接이곳로請求하시오 (同所係員)

骨董商의꿈

▼……요지음 世界骨董商을 興奮시킨 事件의하나는 佛蘭西 十六世紀의 巨匠 『장·밥티스트·그루-즈』의 그림이 羅馬古物商에서 나젓다는 報導일것이다. 이야기는 『리아이나』의 『大廚』 『안렉산더·리단』이라는 사람이 古物商에서 一金一圓에 『그루-즈』를 사가지고 [illegible] 판다고한다.

▼……이것은 요지음이 지난여름에어시 [illegible] 에서 『그림다파랑』가 라는 伊太利사람이 『그루-즈』의그림을 一圓에사엇다고한다.

▼……伯林서온 放送을드르면 丁抹商人한사람이 北部佛蘭西 『랑지에』의 어떤술집 倉庫에서 十七世紀에 西班牙가나흔畫家 『쿠리인』의 그림을 發見해서 三千五百圓을 주고사다가 西班牙와서는 八萬八千四百圓까지 준다고 해도안판다고한다.

▼……戰爭이나 地震과가튼 大事變이잇슬적마다 貴族이나 富豪의 遺族들이 거리에나서서 貴重한 그림들을 단돈 몃푼에 放賣해 버리는 일이 만타.

▼……지금 『루-블』博物館에잇는 『렘브란트』의自畫像하나는 단돈 二 『프랑』을 주고 어떤自動車運轉手에게서 산것이라고한다.

▼……그러케말하면 英國皇帝陛下의 王冠에 끼친 有名한 綠玉紅寶石은倫敦거리에서 우연히 사엇다 또지금 『스웨덴트』의 『에딘바라』에잇는 國民美術館에걸린 『잔·또-미어』의 『마리아와마르타의집에간의 基督』은 어떤 家具商에게서 八磅을 주고산것이다.

▼……어느시골구석에서 骨董商의 賣品이라고 뭐여나흔것을 꿈꾸는 骨董商의 心理는 東西가 一般인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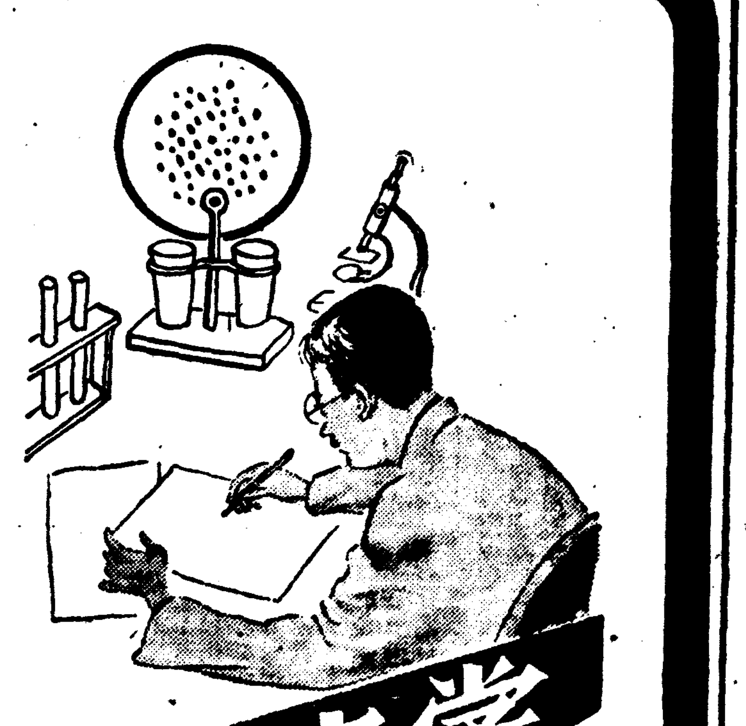
世界의귀

名作 "발자크像" 四十年後비로소出現

【巴里發同盟郵信】 偉大한 彫刻家 『로댕』의 傑作中傑作이라고하는 文豪 『발자크』銅像은 오늘까지 藝術家의 批難의的이 되어 世人의 눈에 띄이지 못한채 『로댕』博物館속 기피 收藏되어잇섯는데 얼마전겨우 世間에나타나게 되어 除幕式이 佛文相 『장·제-롬』 『에밀·죠린』의 子孫의 立會下에 『발자크』 와 『로댕』과 由緖기픈 『國파르나쓰』에서 嚴肅히 擧行되엇다 이 決定은 三百人餘의 佛作家와 藝術家를 會員으로 한委員會의 英斷에 依한 것이다 元來 이 『발자크像』은 一八九一年 『에밀·죠린』의 依賴에 依하여 『로댕』이 苦心製作하여 一八九八年 完成한것이나 한번世上에 紹介되자 當時世人에게 서 非常한 批難을 바다 드디어 社會的으로 匿葬당햇든 것이다

新刊紹介

◇文章 新年特大號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社 [illegible] 定價六十錢 送料三錢



淋疾学

淋疾이 낫게되지안는 것은如何한理由일까

무슨病을勿論하고 그病을固執한 이러타할藥이업는病은 애當初부터 그러病에걸니지안토록注意하야 豫防에힘쓰는것이 第一上策이겟은 드만藥必需도 엄몰것입니다 淋疾病도 그中의 하나로서 고쳐하는藥다운藥이 하나도업서슨때문에 淋疾을 앗는사람으로하여곰 淋疾은 한번만 걸니면 영영못곳치는 病이라하여 悲觀케하엿스며 또는죽음처럼 낫게되지안엇든것도 無理업는 事實이엇습니다

淋疾이낫게되는藥은 獨逸이처음發明햇다

그러든것을 數年前 獨逸에서 어떠한病을 治療할目的으로 그病에對한 治療藥을새로 發見하자 그藥을 淋疾治療에 應用해보니 淋疾을 治療하는데도 亦是卓效가잇슴을 發見하고 結果를 全世界에 發表하는同時에 하면으로는다른病을 治療할目的으로 發見한藥이 엇재서 淋疾에도 有效한가하며 그藥에 包含되어잇는 藥物中에 어떠한成分의 藥物이 淋疾治療에 有效한가를 硏究中이엇습니다

獨逸이아러내기前에 佛國이먼저아러냇다

이와가티 獨逸이 苦心硏究하는中 건너便佛國에서도 또한그有效한成分이 무어인가를 아러내려고 亦是硏究하여 마지안엇는바 그만佛國이 獨逸보다앞서서 發見해내는데에 成功하는同時에 그發見된 成分의 藥物만으로 淋疾을 治療해보니 獨逸이 發明한 藥보다도 그以上더 有效한데다가 더욱이 急性淋疾에卓效가잇슴을 發見하고 今番의佛國에서이를또世界에 發表하여 藥界를 驚愕케하는同時에 獨逸을顏色이엽게맨드럿습니다

今番은獨逸이佛國보다 더有効한것을發見햇다

그러나 醫學과藥學으로는 첫손가락을꼽는獨逸이 佛國에게지고 가만히 잇슬니가잇겟습니까 그래서 今番은 獨逸이佛國에서 아러내맨드藥을 嚴密히檢討해보니 自己가 맨처음發見해낸藥보다 나은것은 事實이나 實驗해본結果 多少의副作用이 잇는同時에 急性淋疾에는 有效하나 慢性淋疾에는 別로히 신통치 못한것이 判明되엇습니다 그래서 今番은獨逸서 또다시 苦心硏究한結果 慢性淋疾에有効할뿐만아니라 副作用까지업는 더한층優秀한것을 發見하야이를 또世界에發表하엿습니다

이것이 卽오늘날 我國에 急性淋疾에有効한 佛國式을 본바더맨든 一基性化學劑와 慢性淋疾에有効한獨逸式을 본바더맨든 二基性化學劑를 大流行케한經路이오며 淋疾은이藥이아니면 안된다할만큼 이두가지同性異名의 藥이治淋界의 寵兒가 되고잇는 現狀임은 本文을 읽어주시는분이 미잘알고기시는바이라고 밋습니다

內服겐고-루는 獨佛療法의合成劑다

藥店製藥化學硏究部에서는 獨佛兩國의 製法을摸倣하는데에만 그치지안코 獨自의立場에서 獨佛兩國의製法을 比較檢討하는同時에 急性淋疾에는 佛國式藥을써야하는 不便한點을업세기爲해 苦心硏究하온中 한가지의藥으로 急性淋疾 慢性淋疾을 勿論하고 同一한效果를 發揮케하려면 獨佛의兩製法을 獨特한方式으로 配合調劑하는것이 兩藥力의 相乘作用으로因해 가장 完全無缺한 效果가잇다는 發見을하고 [illegible] 臨床實驗을 거듭한후에 獨創的으로 合成製劑하는데에 大成功한것이 本內服『겐고-루』입니다

그러면各淋疾症勢에 如何한效果가잇는가

本內服 『겐고-루』는 以上의말한바와가티 佛國西藥學의 功績으로서 世界를 驚嘆케한化學劑와 거기에다 또獨逸醫學의功績으로서 다시 이를더욱增强케한化學劑인 二大療法이 한가지의藥으로 되어잇서 治療效果를 더한층强化케한때문에 各症淋疾을 通하여 조금도 다름업는 殺菌力은 體內어떤곳에 潛伏한 淋菌일지라도 낫겨노치안코 모조리殺菌作用을 함으로 急性淋疾은服藥三日後이면 疼痛이업서지고局部의부기가 빠저버리며 고름도完全히끄치고 小便이대번 맑거저서 藥을더쓸必要가업게 되오며 오래된 慢性淋疾로서 淋系가들지업서지지안는증세는 勿論이오 淋毒性으로併發된 [illegible] 膀胱炎 睪丸炎 手足關節炎等의 惡症도 化學療法의 特性을最大로 發揮케하는 本劑의 獨特한 衝擊療法으로 三四回만治療를 反復해주시면 이亦是快癒의 症勢로一變하여 完治해집니다

衝擊服用의治療法은 速한效果를더速케해

어떠한病에 어떠한藥을쓰게되든 藥量을만히쓴다고 效果가만흔것이아니며 또는 적게쓴다고 效果가 적은것이아닙니다 即藥은 分量을 그病에가장알맛게쓰는것이 病을 第一빨리낫게되는것이겟습은 그누구나잘理解하실줄로밋습니다

本內服 『겐고-루』도 服用治療法에 對하여 專門醫와 苦心硏究한結果 本劑는 藥을每日服用하는것보다도 間隔的服藥法을 取해주시는것이 即 다시말하오면 藥을 每日每食後에 六錠式(一日十八錠)三日間을 連續服用해주신후 그다음의四日間은休藥하시는것이 最大强力의殺菌作用을完全發揮케하여 速한效果를 더速케하는最良의服用法이며 어떠한症勢의淋疾이라도 快速治癒케하는 衝擊療法임을發見하엿습니다 그뿐만아니라 治療費用에도 多大한經濟가되므로因해 絶讚을밧고잇는바입니다

副作用은絕對로업다

本內服 『겐고-루』는 本劑의完全無缺히發揮되는 强力한殺菌作用이 體內에서 最大限度까지이르게 하엿스되 生體各器官에는 何等의副作用이 조금도업슴으로 絶對로安心服用이될니다

藥價는極히低廉합니다

淋疾患者의 第一苦痛인것은他疾病에 比하여 治療費用의 加重負擔이 큰것이온바 弊店에서는이점에留意하는同時에 性病撲滅을 目的하여 藥價를 一大奉仕的으로 極히低廉케 하엿사오니 어떠한症勢의淋疾을 勿論하옵고 本內服『겐고-루』로 하로바삐治療해주신후 速히 病苦에서 버서나주심바라오며 마지안는바입니다

注文은速히하십시요

本內服 『겐고-루』는 朝鮮全道에서도 各有名한 藥房이 販賣하고잇사오니 指名買入하시와 服用治療해주시되 近處藥房에업거나 品切로因해 買入不能하신때에는 左記總代理店本舖로 振替나 或은爲替 또는代金引換便으로注文해주시면 至急發藥해드립니다

藥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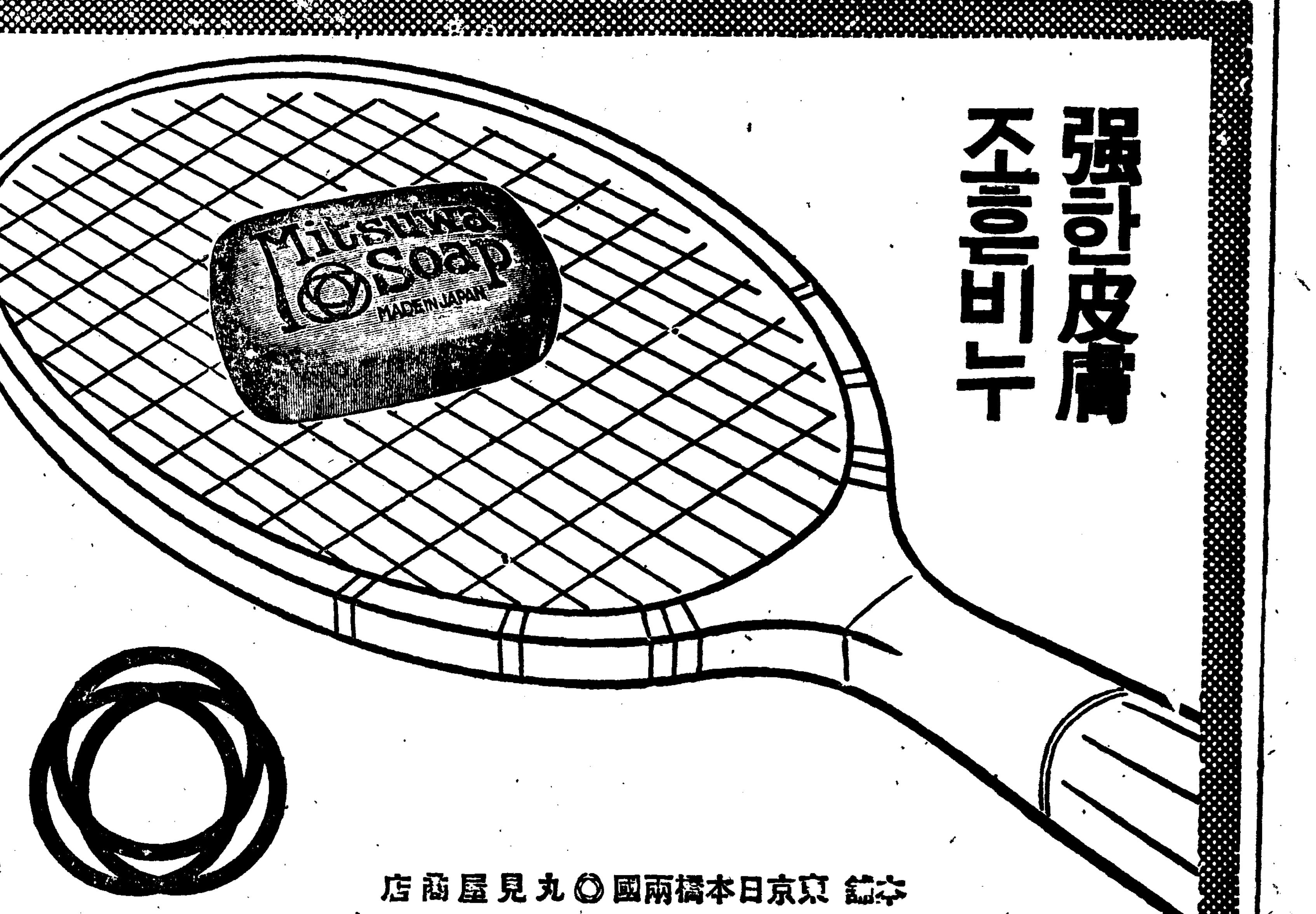
一쿠-루(一衝擊分)	五十四錠入	一圓五十錢
二쿠-루(二衝擊分)	一〇八錠入	二圓八十錢
四쿠-루(四衝擊分)	二一六錠入	五圓三十錢
病院大量用	五〇〇錠入	十二圓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內服 겐고-루

最高級純正新治淋化學衝擊療法劑

强한皮膚 조흔비누



팽팽히彈力잇는 바탕을맨드는미쓰와

미쓰와는理想的溶解度로 一〇〇%의코로이드溶液이되여 皮膚구석까지汚垢도 黴菌도곱게除去하고 疲勞한皮膚에 젊은힘을生蘇시킨다!

그윽히풍기는조흔香氣도미쓰와의자랑이다!

特殊한製法으로 부스러안지고三倍쓴다

經濟本位의비누

ミツワ石鹼

本舖 東京日本橋兩國 ◎ 丸見屋商店

NOV.46

十四年經濟界回顧 ②

海外依存性脫却
日滿一體化一層緊密

生擴

軍備의充實과經濟力의增大 이 두가지를 目的으로한 生産力의 綜合的擴充計畫은 今年이 其第一步를내디딘해이다. 그러나 이와同時에이計畫의遂行上가장큰困難, 도認測에依해서는 不可抗力이라고도할만한 障碍에 부다치게된것도 또한今年이엇섯다. 滿蒙國境에잇서서의 大消耗戰의展開, 第二次世界大戰의勃發 朝鮮의旱害, 北支의水害 그리고 國內에잇서서는 電力及石炭의不足等 어떠것을물지라도 生産力擴充計畫遂行上에 잇서서 極히重大한 障碍가아니이가지수없은 擴張計畫이다.

生産力擴充計畫은 今年一月에制定되엿인데 其種子는鐵鋼(鋼材/普通鋼, 特殊鋼及鑄鍛鋼), 鋼塊, 鐵鑛, 鐵鋼石, 石炭, 輕金屬(알미늄, 마그네슘) 非鐵金屬(銅, 鉛, 亞鉛, 錫, 니켈) 石油及其代用品(重油, 揮發油, 원유, 自動車燃料油, 人造石油, 航空揮發油, 無水알콜) 曹達及工業鹽(曹達灰, 苛性曹達, 工業鹽) 硫安, 펄프(製紙用, 人絹用)金, 工作機械, 鐵道車輛(機關車, 貨車, 客車)船舶, 自動車, 羊毛, 電力(火力, 水力)等의 十五品目에對하여 昭和十三年度를 起點으로하고 昭和十六年度에이르는 四個年間에 其生産額을 今年으로 倍加하여 約七十五程度로 增加시킬것을 目標로한것이다.

이計畫은 元來我國産業機構中에서 가장脆弱한部門만을取하여 이것을 所謂重點主義的으로 擴充할것을 期하엿는것인데 右計畫의 編成當時에겁서는 이十五品目에 對해서도 緊急需要에따라서 區別하고鐵, 石炭, 工作機械, 石油, 金等을 優先的으로取扱하는一方 曹達及工業鹽, 펄프, 自動車, 硫安等은 資材의 調達하여配給을期待할수업는 狀態에 엇게되엿이다. 計畫은 計畫으로서 어것을 遂行하기에 努力해야할것은 勿論이지만 現實을資材가 不足하면 어찌할수업는것이 計畫의 實行方面을指導하고잇는 政府當局의 말이엿다.

그것은 別問題로하고 生産力擴充計畫은 今年大, 七月까지에는 大體豫定한바와가치進行되엿다. 그러나 今年七, 八月以後에表面化된勞力及電力, 石炭의不足, 歐洲大戰의勃發로 因하여 原材料, 機械의 輸入難等은 生産擴充에 不少한支障을주어 一部에잇서서는 新規計劃을 中止하지 안흘수업게되엿다. 그러나 이것을 總體的으로본다면 이러한 困難에 直面해스면서도 鐵, 非鐵金屬 輕金屬, 工作機械等의 方面에서는 거의 豫定에가까운 成績으로써 着着生産의 擴充이 行해지고잇는것은 明白한事實이다.

物動

生産力擴充計畫과 物動計畫이의 影響關係의 關係에 잇는것은 다시말할것도업다. 따라서 生産力擴充計畫遂行上에미치는 影響은 物動計畫上의 支障을 招來하게된다. 今年度의物動計畫은 物資의需給관계 海外需要, 官需需要, 生産擴充用, 輸出用, 國防用, 國民需이의 가지 點에서 嚴格하게 區別하데에 昨年度의그것과 同樣하三送運가잇는데 政府에서 이려케 嚴密한計畫을 設定치안흘수업엇슨은 가장根本的인事情은 物資의 수요이 減少되어 需給關係가 顯著히窮迫을超取한때문이다. 物資의逼迫은旣少한故障에도 全體에 影響이밋치는것과가치極히微妙하게되엿스年度의 物動計畫은 物資의需給事情에 조고만치라도 變換外의 事故가發生되면 計劃全體의運營에多大한 異狀을 發生시킬性質의것이엇섯다.

그런데 物資의 需給關係에 異變을招來한動因은 모두容易치안흔것이엇다. 電力, 石炭等의 基礎産業部門에잇서서의 供給의 不圓滑로因하여 今年以來生産擴充部門에잇어서의 不動을준것은 周知의일이어니와 北支의 水害로因하여 棉花 支那棉의輸入이 全然不可能하게되엿고 歐洲大戰의勃發로因한 國際物資의 騰貴와 諸般의 事情도 輸入相場에 影響 外國에 잇서서의 物資의 輸出禁止, 又는 困難이加重되엿든 七, 八月까지는 低頭에八十圓台에잇든米國의 屑鐵市價가 一躍百四, 五十圓으로 暴騰된것을 보더라도 容易히想像되는바이다.

國際物價水準의 上昇은一面에잇서서 我國의 輸出을 促進시키는것이지만 輸入資材의價格이 五割乃至十割이나 暴騰된데에 比하여 輸出品價는 겨우二, 四割의 騰貴에 不過한 跛行的狀態이다. 이러한對第三國貿易事情의 變化는 當然히 物動計畫의 根幹이되는 貿易計畫의 改訂을招來하게된다.

[illegible]

食糧政策具體化
各道統制組合과中央서米買上
農務課長會議席上 湯村農林局長說明

食糧政策의 具體化를 圖하려는各道農務課長會議는 昨日임에도不拘하고 二十五日 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開催하고 食糧全般에 對하여 討議하엿는데 朝督府의政策에 順應하여各道에서도 各其具體化를 急히하기로되엇는데 當席上에서 湯村農林局長의 米穀統制 强化에對한說明要旨는 如左하다

米穀

(가)各道에잇서서의 統制組合으로하여금 道內의 消費調節에必要한 數量道間移動에 必要한數量 內地移出量(特殊需要)를買上케할것

(나)右中內地移出, 特殊需要, 朝鮮內에잇서서의 市場調節에必要한 適量을中央(總督府)에서 買上한다 右買上은 朝鮮米穀市場 株式會社로하여금 代行시킬것

(다)右에必要한 資金은 內地移出, 特需分을總督府에서 斡旋한다

雜穀

雜穀은 道內自給自足의 見地에서 不足또는 過剩分은朝鮮雜穀配給組合을通하여 移動또는受入한다

米穀市場會社 米穀買上代行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는 오는 一月四日부터 開業하기로되엇는데 現在의 米穀取引所는同會社의 機能에 여러가지 支障이 豫想되는同時에 延하여는 米穀市場會社存立의 意義에對하여 多大한 危惧가잇는데 當局의 總督府에서는 當局의 米穀買上代行機關으로서 同會社의機能을 利用하고 또內地移出正租또는 玄米의 所謂事務等의 處理等까지 取扱케하기로되엇다

米穀調整令 廿七日公布

朝鮮米穀配給調整令은 二十七日公布 即日調整令第六條(內地의第四條에相當)及必要條項을 發動키로될터이이오 右에依하여 政府는 必要한 境遇移動買賣에 對하여命令을할수잇다

米穀市場開設 取引概要發表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에서는新米穀市場開設과 其取引槪要에 對하여 如左히發表하엿다

設立된以來 이에一個月 그동안 지난十一月二十五日 當會社가 當局을爲始하여 關係各方面의絶大의支援下에 全力을다하여 開業準備中인데 드디어 紀念할皇紀二千六百年의 初春一月四日부터 京城의 延市場 同六日부터 釜山의現物市場을 開業하기로되엇고 其他京城 仁川 群山 木浦 大邱의 各現物市場은 느저도二月一日까지는開業할豫定이다 그리고 此新米穀市場에 잇서서의 賣買取引은 槪略如左한方法에 依하여行한다

一、延取引

一、賣買하는사람 市場員에限함(一般은市場員에게 委託)
二、賣買하는穀物 玄米及正租
三、期限 二個月期限인二期建
四、組合銘柄建米
　第一區 ㊄㊅㊆米 ㊇銀坊主四等等建(正租는三等建)
　第二區 ㊁㊂米 ㊇銀坊主四等建 (同)
　第三區 ㊁米 ㊁普通米四等建 (同)
五、代用米 各組合銘柄等級米에限함
六、受渡場所
　第一區 京城, 仁川
　第二區 群山, 長項, 江景, 木浦, 麗水
　第三區 大邱, 浦項, 釜山, 馬山
　右指定倉庫
七、賣買單位 玄米百石 正租百叺
八、賣買時間及方法
　午前 第一回 午前 九時開始
　午前 第二回 午前十一時開始
　午後 第一回 午後 一時開始
　午後 第二回 午後 三時開始
　右各回의初節賣買에繼續하여서 라바賣買
九、委託關係其他는大體從前과大差업다

二、未着物取引

一、賣買하는사람 市場員에限함(一般은委託)
二、賣買하는穀物 正租, 玄米, 白米(內鮮灣共)
三、期限 一個月以內
四、賣買時限 每日午前九時부터 午後三時까지
五、賣買方法 相對賣買(入札賣買도할수잇다)

三、現物取引

一、賣買하는사람 市場員外一般人에게公開함
二、賣買하는穀物 正租, 玄米, 白米(內, 鮮, 灣共)及粟, 麥類 大豆
三、期限 即日受渡租五日間은合意繼延할수잇다
四、賣買方法 相對賣買(入札賣買도 할수잇다)

現下의米穀事情은 매우 異例的實情에 잇서 米雜穀의 賣買取引도極히 窘蹙하며 따라서 이新米穀市場이 開設될지라도 其本來의使命을 達成하기는 매우 疑義되는바이나 現下의 米穀事情이 이와가치 窮屈하면窮屈할수록 國策會社로서 米穀의 配給統制를 唯一한目的으로하는 當會社의 使命은 드디어 重大함이 加重되는同時에 이使命을 達成하기 爲하여 當會社의 活躍範圍는 去益擴大될것을 確信하여 마지안는바이다 이點은 特히認識하고 今後市場取引의 發展은 勿論 當社의 重大한 國策的使命達成에 直接關係로만好援助와 協力해주기를 切望하여마지안는바이다

大産金業者에게 補助獎勵金交附
割增金制度의缺陷補塡

産金割增金制度의 缺陷을補充코저 그對策에對하여 總督府에서는 大藏省局과 여러가지로 協議를 거듭하고잇던바 金買上價의引上에 對해서는 政府의低物價政策에 違反되고 또割增金의增額案도 許多한矛盾이 伴하게되므로現行의獎勵 擴張 燐鑛獎石補助獎勵金을 增額하는同時에 從來本獎勵金이 中小産金業者에對하여 實施되던것이엇스나 今般의 增額補助金은 旣設大規模의産金業者를 目標로하여 割增金制度의 缺陷을補塡하고 産金國策의完遂를 期하기로 決定하엿다 이로因하여 이미明年度豫算에 要求中인 産金補助金은 相當히增額하기로되엇다

京東鐵道配當一本建

京東鐵道에서는 本月末決算을 期하여 一月下旬定時總會를 開催하는데 從來의 舊株八分 新株七分의配當을 今期부터 七分一本으로하기로 決定하고 兼業自動車營業을 擴大强化한後 一分增配할 方針이다

化學工業縮少
上內東拓理事談

上內東拓理事는 本社와의 業務協議를마치고 二十六日歸任한바 關係事業에 對하여 如左히 말한다

◇咸興水電創業…關係方面의協力으로 鴨江水電의 認可는明瞭로되어 明年始初에 發起人會를하고 擴込을決定한後 一月上旬頃에創立總會를 開催하게될것이다 同社創業上 資金其他는 格別關係가업스나 諸問題는 資材의技術로 關係方面과 折衝中이다

◇北朝鮮의化學工業…江界와提携하는 昭和電工의 北朝鮮에잇서서의化學工業의 計畫은 여러가지點으로現在까지 展되지안엇는데 同社의 技術者도 再三에亘하여 現地를調査한後 計畫을세워 드디어明年에는 具體化되게되엇다 資材關係로 制約되어最初豫定의 規模보다 若干修正되어 적게될것이다

◇其他…人事問題에 對하여는 社外에서 여러가지 말이잇는데 關係事業會社新設等으로 補充을 要하므로 明年一月末乃至 一月頃으로될것이다

通貨膨脹去益急
日銀券은二十三億圓
鮮銀券四億五千萬圓

通貨膨脹을 거듭하는 日銀券 鮮銀券은 또新記錄을 更新하엿다 即二十六日 總發高는日銀券은 二十三億六千六百十七萬九千圓으로서 二十三日 總發高에比하면 實로九千九百三十一萬圓의 急增이며 鮮銀券도 八百五十五萬二千二十一圓이나 激增되어 四億五千三百七十二萬一千五百七十六圓으로서 驚異的膨脹이엇다

今年의貿易決算
大體로豫定대로好績
明年은一層輸出增進이必要

【東京】大藏省에서發表한 今月中旬貿易은 旣報와가치 十二月上、中旬을 通計하면 輸出은 二億四千七百七十五萬四千圓으로써 前年同期의 一億七千四百九十萬二千圓에比하여 七千二百八十五萬二千圓의增, 輸入은一億九千五百二十六萬三千圓으로서 前年同期의 一億七千二百四十八萬圓에比하여 二千二百七十八萬三千圓의增으로서 輸出入이모두 增加되어 從來에는輸入超過되던것이 輸超이엇섯는데 十二月에 잇서서도 輸出超過를 持續하고 잇는셈이다 그리고 一月以降 十二月中旬까지의 累計는 輸出은 三十七億六百九十二萬五千圓으로서 前年同期에 比하여三割五分의 增 輸入은 二十九億八千九百八十六萬八千圓으로서 前年同期에比하여 一割一分의 增加이며 輸出入高는 輸出超過가 七億一千七百餘로 突破하여 七億圓이나 超過

十二月度綿糸
生産配定決定

十二月度綿絲의 配定은 混紡(內需用) 一千九百七梱 純綿(特殊用) 一千三百五十四梱, 計三千三百六十一梱인데 右生産配定을 如左히決定하엿다

▲東洋紡績 混紡 三百八十二梱 純綿 二百七十一梱 計六百五十三梱
▲朝鮮紡績 混紡 六百十梱 純綿 四百三十三梱 計一千四十三梱
▲鐘淵紡績 混紡 六百七十梱 純綿 四百三十三梱 計 一千四十三梱
▲京城紡織 混紡 三百五梱 純綿 二百十七梱 計 五百二十二梱

大豆澱粉飴其他 各公定價格決定

【東京電話】中央物價委員會에서는 二十二日午後二時부터 東京會館에서 第十九回常任委員會에뒤이어 同三時半부터 第三十六回總會를開催하고 一、食糧品物價專門委員會答申의澱粉, 飴, 大豆의最高販賣價格 一、化學工業品物價專門委員會答申의曹達灰及 苛性曹達의最高販賣價格 一、纖維品의物價專門委員會答申의『스·파』製品 棉製品의 最高價格改訂 을可決答申하고 同五時散會하엿다

高周波系의 兩鑛山創立

高周波系의 兩鑛山會社는 二十六日及 二十八日에 各各如左히新設키로決定하엿다

一、雲松鑛業(資本金百五十萬圓) 咸南端川의 니켈其他의 探鑛 社長高橋省三, 專務小笠二郞氏 就任 二十六日創立
二、若山鑛業(資本金百五十萬圓) 九州大分의 若山니켈의探鑛高周波眞系會社 二十八日創立

漢江水電移轉

漢江水力電氣株式會社에서는 從來 朝鮮信託會社內에 事務所를 두엇섯는바 今般資金二千一百九十三番地로 移轉하고 二十六日부터 執務하엿다

橫濱生絲續進

(橫濱電話商通)十二月二十六日의新高價의 뒤를이어 紐育은 크리스마스祭로 入電이업고 新味가적으나 需給關係에伴하여 年末이라해서 크리스마스以降의 紐育市場期待人氣가 濟在하여 利喰以外의賣物이업는 反面 輸出商을 爲始하여 地場及地方側의 一齊買進로 三月限三十四圓乃至五十四圓가량이나 上放되어 全限이 모두 一千三百圓台의 新高價를 示現하고 先限도 一千三百四十圓으로부터五十四圓으로 暴騰되엇다 二節은 午後一時半부터 開始할豫定이다

中央物産總會

中央物産會社에서는 二十四日午後一時부터 同社에서 定期株主總會를開催하고 諸決算及利益金處分案承認의件과 監査役一名 任期滿了에伴한 改選의件을 附議한結果 모두原案대로 承認하고 監査役은重任하기로되엇스며 利益金處分案은如左하다

當期剩餘金 二〇、九七四圓 前期繰越金 一〇、四八七圓 合計 三一、四六一圓 法定積立 一、一〇〇 社員退職手當 五〇〇 役員賞與 二、〇〇〇 株主配當(年一割)二二、〇〇〇 後期繰越 五、七一一五〇

弘中商工總會

弘中商工에서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第五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第五期諸決算案及利益金處分案議決의件 二、定款變更의件을附議하여 모두原案대로 可決하엿다

當期利益金 三〇、三六〇 前期繰越金 一〇、一五三五 合計 四〇、七〇二 法定積立金 一八、〇〇〇 別途積立金 一二〇、〇〇〇 社會事業寄附金 五、〇〇〇 役員賞與金 一五、〇〇〇 配當金(年一割二分)一〇四、三八五 後期繰越金 一四一、三一六

朝鮮汽船總會

朝鮮汽船에서는 二十六日 釜山本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分增配의 七分配當을 異議업시 可決하고 代表取締役에는 高井春五郞氏를 選任하엿고 高井氏는重役會에서 社長으로 互選되엇다

絹毛工場近間完成

東洋製絲의 往十里絹毛工場은 十二月에 竣工될豫定이던바 機械未着으로因하여 一月下旬에完成되어二月부터操業을 開始한다

寸鐵

▼…米穀配給調整令 二十七日公布 即日必要條項發動.
▼…賣買에對하여 命令을할수잇게되엇스니 쌀가지고작란하는사람 사먹는사람들 稱讚자리자.
▼…鮮銀券은 四億五千萬圓台로膨脹. 이러다가는 五億소리도나겟군.
▼…惡性인물價騰貴防止에 全力을다하자.

三十一日銀行 平常대로營業

京城組合銀行에서는 今年十二月三十一日은 日曜日에該當하나 一般의 便宜를爲하여 平常대로營業하기로 決定하엿다

今日의市勢 二十六日

株式 一高一低 往來

前場低弛 今朝는 東新八低인 百四十八圓六 鐘新一圓一低인百十八圓九 朝新二低인 三十三圓丁에 下押寄付된後 突込買도 警戒되어 少擧모양이다가 結局東新百四十七圓丁 鐘紡百八十圓七 鐘新百十九圓二에 大引

後場採合 後場은 東新四高인 百四十七圓四 鐘新一圓五高인百二十圓七에 反高寄付後續極妙味가업서 結局東新 百四十七圓四 鐘紡百八十一圓五 鐘新百二十圓丁에 大引

逆行的不勢

二休暮지난 今朝는 鐘紡에減配說로 不勢를랑을따라 東新도 百四十六圓臺로壓迫되어 年末一憾이 잇스리라고 豫期하고 잇던 人氣에 逆行하는 低落을告하엿는데 생각컨대 未曾有의重大諸案件을 擔한議會는 目下開幕中이고 日米通商問題도 相當한期待를 가지고잇기는하나 아직米國側에서 新通商協定을 締結하겟다는 意思表示를한것이아니니 一方的으로 樂觀할수도업는 狀態이다 그러므로 今年은明年에보지못하던 擊惡한越年을 하게될것인데 今年은 二日을남것슬뿐이니 其間에 一轉이잇다하여도 그程度는 可知일것으로 大勢는이미 決定된것으로보이나 見方如何

現物一息

經濟界의不動으로現物도利食物로一息狀態로 [illegible]

市場所感

(株)…鐘紡의 配當通知가 遲延되어 例에依하여 減配說을流布▲其他諸株도 年末整理로 大槪不勢를呈하고잇서 年內市勢에對한 期待는雲散▲例年잇는『모찌츠끼』하나 업시 寂寥한越年이될모양▲議會는드디어 開幕되엇는데 政黨의態度가 注目되고▲日米通商協定問題의 前途도 逆睹不能▲後二日間의 立會가 남엇을뿐이니 仕手의焦燥는 深甚

朝取初立會

朝鮮取引所의 初立會는 恒例대로 一月四日午前八時부터 開始하기로決定하엿다

一、午前八時 振節
二、荒井理事長人事
三、取引員委員長答辭
四、取引員賣買高表彰
五、勤續取引員表彰 (山口恒太郞氏)

海苔强調

海苔는生產狀況이極度로不良하여 昨年에比하여 約四割의減收인데 이에따라 市勢는 자못强調를呈하여 光陽產甲印은 八十束에三百二十圓 乙印은三百十圓 花印은三百圓을 부르고잇다

今日財界 廿六日

◆米穀(京城, 公定價) 玄米㊇銀坊主 四等石 [illegible] 七分搗白米小賣價 [illegible]
◆雜穀(仁川, 都賣價公定) 大麥 [illegible] 裸麥 [illegible] 粟 [illegible] 大豆 [illegible] 京城金(匁) [illegible]
◆株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厘) [illegible]

朝取短期 / 東京短期 / 大阪短期 / 東京現株 / 朝鮮內株式 / 內地株式 / 滿支株式 / 今日現株市勢(正午調)

[illegible]

棉花 / 綿布 / 生糸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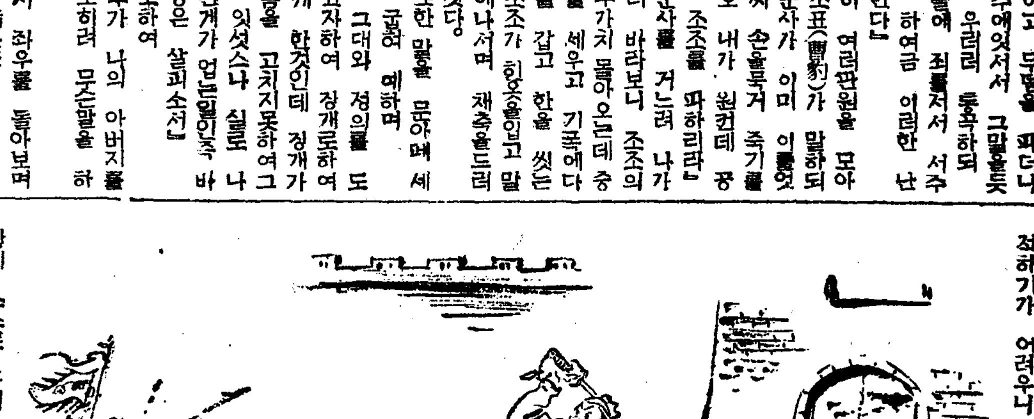
海外經濟 / 銀行券 / 金利 / 手形交換 / 鑛油粕麥粉 / 金銀價 / 對外爲替 / 正米 / 正租 / 雜穀 / 綿絲布 / 滿洲商況

[illegible]

京城物價 廿六日

[illegible]

三國志 (53)
韓龍雲 譯 熊超 畫



曹操의復讐戰(三)

조조의 군사가 이르는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무덤을 파더니 도겸이 서주에잇서서 그말을듯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되

『내가 하늘에 죄를지어서 서주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난을 밧게한다』

하고 급히 여러관원을 모아 상의하는데 조표(曹豹)가 말하되

『조조의 군사가 이미 이르럿스니 어찌 손을묶거 죽기를 기다리오 내가 원컨데 공을위하여 조조를 파하리라』

도겸이 군사를 거느려 나가 마질새 멀리 바라보니 조조의 군사가 조수가치 몰아오는데 중군에 큰기를 세우고 기폭에다 크게 『원수를 갑고 한을 씻는다』 썻다 조조가 힌옷을입고 말을노하 진에나서며 채쭉을드러 크게 꾸지젓다.

도겸이 또한 말을 문아래세우고 몸을 굽혀 예하며

『나는본래 그대와 정의를도타이 하고자하여 장개로하여금 호송케 한것인데 장개가 도적의마음을 고치지못하여그러한일이 잇섯스나 실로 나에게는 관계가 업는일이옥 바라건데 공은 살피소서』

조조가 노하여

『늙은 필부가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오히려 뭇는말을 하느냐』

하고 다시 좌우를 돌아보며

『누가가히 늙은도적을 사로잡을고』

하후돈이 소리를 응하여 나간데 도겸이 황망히 달아나진으로 들어가는지라 하후돈이쫏차가니 조표가 나와서 대적할새 두말이 서로만나매 홀연히 미친바람이 크게 일어나서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리니 두편군사가 스스로 어지러워 각각 군사를 거두엇다.

도겸이 성에들어가 여러사람과 상의하되

『조조의 군사가 형세가커서대적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마땅히 스스로 묶거가지고 조조의진에 가서 마음대로 죽이게하여 서주고을 여러백성의 목숨을 구원하리라』

말이 맛지못하여 한사람이나서며

『공은 서주에 오래잇서서 백성들이공의은혜에감동하는지라 조조의 군사가 비록 만흐나 우리의성을 곳 파하지 못할지니 공은 백성으로 더부러 굿게지키고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비록 재주가업스나 원컨데 적은꾀를내어 조조로하여금 장사지낼땅이 업도록 하리라』

여러사람이 크게놀래어 계교를 물으니 그사람은 동해구현(東海朐縣)사람 미축(糜竺)이 자는 자중(子仲)이라 미축이는본래 부자요 세력잇는 사람으로 낙양에다니며 장사를하더니 한번은 수레를타고 돌아올새 길여서 어여쁜 부인을 만나서 수레를 가치타기를 청하거늘 미축이는 수레에 나려서 걸어오고 자리를 그부인에게 사양하엿더니 그부인이 가치타기를청하는지라 미축이 수레에올랏다 정히 안저서 눈으로 사시되게 보지 안터니 얼마를가다가 부인이 사례하고하직할새 미축에게말하되

『나는 남방 화덕성군(火德星君)이라 상제(上帝)의명을 바다 그대의집에 불을노흐려 가더니 그대가 서로 대하기를 예로써하므로 그것에 감동하여 사연을 말하노니 속히가서세간사리와 재물을 끄내소서 내가 오늘밤에 가리라』

말이마치지 보이지 안는지라 미축이 크게놀래어 급히 집에 돌아와 집안물건을 끄내엇더니 그날밤에 과연 부엌에서 불이 나서 그집을 다태운지라 미축이 이로 말미암아 재물을 허터서 가난한이를 건지고 괴로운이를 구원하엿다.

뒤에 도겸이 미축을 마저서 별가종사(別駕從事)를 삼앗더니 그날에 계교를 들인것이엇다 미축이 말하되

『내가친히 북해에가서 공융에게 구원을 청하고 또 한사람을 청주에 보내어 전해(田楷)에게 구원을 청하여 두곳의 구원병이 함께오면 조조가 반드시 군사를 물리치리라』

도겸이 그말을 조차서 편지두장을 쓰고

『누가 청주에 가겟느냐』

한데 한사람이 나서니 광릉(廣陵)사람 진등(陳登)이 자는 원룡(元龍)이라 먼저 진등을 청주에 보내고 다시 미축에게편지를주어 북해에 보내고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지키엇다.

북해 공융의자는 문거(文擧)니 노국곡부(魯國曲阜)사람으로 공자의 이십세손이오 태산도위 공주(孔宙)의 아들이라 어려서부터 총명하더니 열살때에 하남윤(河南尹) 이응(李膺)을 차자볼새 문직이가 물은데

『나는 이집과 세의가잇노라』

하고 들어가서 이응을 보매 이응이 뭇되

『너의 조상이 우리조상과 무슨세의가 잇느냐』

공융이 곳 대답하되

『옛적에 공자(孔子)가 노자(老子 李聃)에게 예(禮)를 물엇스니 어찌 여러대의 세의가 아니리오』